

## 제주해녀의 물질기술과 민속지식

서귀포시 법환동 강애심 해녀 인터뷰 - 2

해녀: 강애심(1952년생)

인터뷰 일자 : 2019. 08.

인터뷰 : 좌해경(Q로 기록),

해녀 : 강애심(A로 기록, 법환 태어남, 20세에 결혼, 32세에 물질 배우기 시작)

Q : 조수가 이거를 잘 이용을 하는 게, 해녀들이 상군해녀가 되는 게 어떤 거를 상군 해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A : 상군이라면 물건을 많이 잡아야 되고, 우선은 물건을 많이 잡는 사람, 또 물도 깊으게 들어가는 사람, 또 물 아까도 조류도 잘 타는 사람, 또 바다에 대해서 인지를 꼭차게<sup>1)</sup> 아는 사람, 이런 거를 보고 다 상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물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 하루 한 이,삼십분(2,30분) 이렇게 폐차<sup>2)</sup>가 생겨요. 오늘은 열두시(12시)부터 물이 좀 잔잔하다 이러면 낼은 열두시(12시) 한 이,삼십분(2,30분) 후에 이렇게 해서 그 시간대를 잘 이용하면 이제 그 괴롭지 않고 물질을 하거든요. 경해서 그렇게 이용, 해서 밑에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는 상군노릇 했지만 나이 들어가면 인지도 좀 둔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상군들이 이제 앞장서서 하는데로 따라가는 형식

Q : 그 해녀 공동체에서 회의를 하잖아예.

A : 예.

Q : 어쨌든 만장일치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어떤 데서 오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A : 그 어촌계라는 데는 만장일치가 없습니다. 그 뭐 회의나 어떤 일에 따라서 만장일치도 될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바다에 물건을 잡는다.’, ‘오늘은 어느 바닷물건 잡으켜.’ 이렇게 하면 그럴 때는 이제 바다도 잔잔하고, 거기는 안 잡았던 바다고 하니까 이럴 때는 만장일치가 되거든요. 만장일치가 되지만 이제 뭐를 금전적이나, 자기 이득이 덜 오거나 이런데 있어서는 만장일치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예, 전혀 없고 뭐, 어촌계만 아니고 세상 살아가는 이치가 다 그런게 아닙니까예.

Q : 그래도 어느 정도 회의 통과는 되야 되잖아예?

A : 예. 해서 그

Q : 회장님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A : 제가 어촌계장 할 때는 그 선배 계장님들이 회의를 할 때, 어촌계는예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예. 전 어촌계에 전 계원들이 회의를 하는 데는 총회라고 하고, 또 그 총회를 대표하는 이제 그 의논에 따라서 대의원이 형성됩니다. 해서 대의원이라 하고, 뭐 백명(100명) 있는 데는 한 십오명(15명). 이렇게 해서 그 중에 어촌계장, 해녀회장 이렇게 임원 세,네명(3,4명) 이렇게 해서 포함 한 십오명(15명) 이렇게. 간단하게 회의를 할 때는 요구된 인원이 하고, 일년에 한두번 총회 할 때는 전 계원이 총회를 해야 이루어지고, 요 대의원들이 결정을 내도 총회, 다른 계원들이 안된다고 그러면 이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경하고 또 회의를 할려면 과반수 이상 성원이 되야 되고, 이렇게 해서 ‘참 구조가 안됐다.’ 해서 옛날 어른 선배님들이 회의를 하는 걸 보민 변칙을 하잖아예.

1) 꼭차게 : 꼭차게.

2) 폐차 : 편차

이제 백이십명(120명)인데 육십명(60명) 모으기가, 칠십명(70명) 모으기가 힘이 드니까 뭐 일하러 간 사름<sup>3)</sup> “나한테 위임 행<sup>4)</sup> 헌<sup>5)</sup> 걸로 허라. 게민 나가 강 일름<sup>6)</sup>으로 쓰켜” 이런 식으로 다 놔<sup>7)</sup>의 이름을 대신 써서 실지는 삼백, 예를들어 정원이 백이십명(120명)인데 육십오명(65명)은 모여야 정원 성원인데, 한 사십명(4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겁니다. 해서 대신 이름을 쓰는 거라. 해서 이게 누가 걸고넘어지면, 걸고넘어지면 무효가 되거든 예, 회의가. 해서 제가 알아본 결과는 위임을 해도 토를 안 달면 되지만, 누가 토를 달면 안 되는 거예요. 해서 위임장만 써줘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자기 인감증명이라든가 이런 게 첨부가 돼야 이게 꼭 차게 성원이 되는 거고 해서 제가 그, 저의 어촌계는 이제 정관을 다 수정해가지고 대의원, 총회를 대의원으로 같음한다 해서 일년(1년)에 한번(1번) 총회는 축제처럼 답례품도 주고 이렇게 다 모아서 하지만 대의원 중 과반수만 모이면 회의를 할 수 있게끔 해서 그 정관을 제가 다 만들어가지고, 수정해가지고 이제 수협 가서 인가받고, 원해는 그거 저, 수협에서 총회 때 통과를 해야 되고, 서귀포는 서귀포 시장이 인가를 해줘야 정관이 완성되는 겁니다게. 해서 수협가서 우린 처음 만든 정관이 아니고 보완하는 거기 때문에 수협인가만 받고 해서, 수협에서도 아, 이거 때문에 문제 있고 했었는데 거민 이거 견본으로 해가지고 각 어촌계에 시달해그네 이런 식으로 총회를 하렌<sup>8)</sup>, 왜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과반이 넘어볼잖아예. 물질도 안나온지가 오년(5년), 십년(10년)된 사람들이 총회를 나오렌<sup>9)</sup> 허민<sup>10)</sup> 나옵니까게. 안나오지. 경허니까<sup>11)</sup> 이제 현장에 맞게 한다고 해서 내가 고쳤는데, 서귀포 수협이 아마도 그걸로 각 어촌계에 시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예.

Q : 옛날에 불턱에서의 회의는 만장일치제 뭐 그런

A : 예. 불턱에서의 회의는 옛날에 저도 물질을 그 곳<sup>12)</sup> 배운 때는 거의 뭐 어촌계가 하는 일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보조를 주거나, 뭐 이렇게 종패를 주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 해서 그 어촌계 회장님들이 다 좌우를 하더라고예. 해서 저희 시어머니도 이제 막 물질허는 상군쪽에 들어가지고, 요렇게 지켜보면 그 상군쪽에 몇명이 이렇게 좌우지우를 막해. 해서 “오늘은 이거 물건 해서 대행들이 이렇게 받아가져 갔저.” 구덕 지고 다니는 사람들 헌티<sup>13)</sup>. “오늘 물건 헌거는 이사람들헌티 주게.” 영허민 어느 회장이라도 주게 허민 “아고, 좋수다 좋수다.” 이게 만장일치가 되는 거라예. 해서 불턱회의는 만장일치다, 그렇게 얘기한 거 같은데마썸. 저 생각도 그러고예.

Q : 숨비소리를 낼 수 잇우과[이수과]<sup>14)</sup>?

A : 숨비소리

Q : 낼 수 잇우과[이수과]

3) 사름 : 사람

4) 행 : 하다

5) 헌 : 한 => 예) 내가 헌 일 : 내가 한 일

6) 일름 : 이름

7) 놔 : 남, 내가 아닌 다른사람, 타인

8) 하렌 : 하라고

9) 나오렌 : 나오라고

10) 허민 : 하면

11) 경허니까 :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12) 곳 : 곧, 금방

13) -헌티(=한테, 한테, 안테) : -에게

14) 잇우과[이수과] : 있습니까?

A : 숨비소리에는, 그 지상에서 숨비소리가 안 나오는 이유가 그 속이 편안해가지고 안 나오는 거라예. 전혀 지상에서 숨비소리 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시다, 저는. 해서 물속에서 숨비소리는 괴로움과, ‘한과 뭐 죽음의 턱에 다다라서 살아나는 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예. 물속에 들어가면 한 뭐 영구로 삼번(3번) 산다지만 삼번 사는 사름<sup>15)</sup> 거의 없을 겁니다. 해서 다라에 물퍼넣고 얼굴 해서 그 실험을 했다고 그러는데 삼번(3번)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어느 분이 해녀 축제 때 그 대회를 그 때 했었, 하는 사람이 기절 해볼었잔아예. 일등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가만히 폭 있었던거라예. 경해신디 그러면은 한 이분(2분)정도면는 저 생각엔 참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람은 열두구멍(12구멍)이 있지만 입과 코로만 숨을 쉬는 게 아니라 모든 구멍으로 피부로 이렇게 숨을 쉬잖아예. 이렇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분(2분)이라는 시간을 할 수 있고,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숨이 상당히 짧아집니다. 기냥 들어갔당 영행<sup>16)</sup> 아무것도 안 잡고 있을 때는 한참을 이만큼 다 휘젓고 올라와도 충분해. 경헌디 뭐 저 전복을 떼거나, 만약에 소라를 이렇게 안고 오다가, 영 오당 보민 전복이 탁 붙으면, 물은 짹 짹 가는데 저것을 내볼면 못 찾을 것 같은 생각에 욕심지지에. 경해서 소라를 내볼고 그 거를 뺄려고 탁 떼고 올라올 때는 죽을 만큼 꼭 그냥 꼭 숨넘어갈 것처럼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은 자기도 모르는 간에 배에 있는 숨이 콧 이렇게 나와서 숨비소리가 한 이키로(2km), 삼키로(3km)까지 들립니다. 삼키로(3km) 더 이상 숨비소리가 들려예. 해서 ‘지상에서는 못 내는 소리다. 죽음의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예.

Q : 그 바다 관련 관리 갯담이라든지 청소같은 건 어떤식으로 합니까?

A : 갯담이는 뭐 공동작업으로 우리 어촌계도 요 전날에 그 공동작업을 갯담이 작업을 하루 한예. 어촌, 여기 근무해부난 연락 안 왕 못 가수다마는, 연락하지 왜 연락 안했냐고 허난 바쁜 중 아난 연락 안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넙작한 쇠 골갱이<sup>17)</sup> 닳은 것이 있어예. 탁탁 찍으면 적을, 만약에 예를 들어 톨이다, 톨이 옆에 있다 게민 톨 옆에 있는 그 적들을 이제 그니까 벽화

Q : 지층이라고 합니까?

A : 예, 적이라고 해예.

Q : 적이

A : 예?

Q : 지층이라고

A : 지층이들도 해볼고예

Q : 적은 다르지 안합니까?

A : 예. 적, 지층이는 해조류고, 해조류에 불과한 거고, 적이라는 거는 돌에 붙어있는 이물질이라예. 이게 벽화현상을 유도하는 물질이라고 보면 돼예. 해서 그 옆에 있는 거를 다 부숴줘부는 거라예. 부숴줘서 이제 돌을 매끈하게 자연스럽게 매끈하게 해주면 발이 뻗을 수 있다. 이렇게 그 뭐 처음에 교육할 때 이렇게 하더라고예. 해서 그 갯담이 사업도 그렇게 하고.

Q : 바다도 깨끗하고예. 군소도 가끔 해녀들이 하시는 거잖아예.

A : 해녀들이 요즘은예, 해녀들이 청소하는 게 거의 드물고, 요번에 그 뭐 어디서 일당 준다

---

15) 사름 : 사람

16) 영행 : 이렇게 해서

17) 골갱이

해가지고 하룬가 이틀인가 청소를 했다는데 그게 청소했다는 것뿐이지 요즘 공공근로들이 계속 아침저녁으로 돌아가지고 다 주워버리면예 또 이제 바다가 울렁울렁 해난<sup>18)</sup> 때는 또 올라오주마쓰예. 게민 그럴 때는 조금 있지만 경<sup>19)</sup> 안혈 때는 이제 뭐 요즘은 해녀들이 하는 거는 극히 드물고예.

Q : 거기 우리 아름다운 할망당들을 찾으면서 법환이도 거기도 아름답다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막 쓰레기들이랑예 그거 언제 작업할 때 한번 치우기는 치워야 되겠더라고예.

A : 경허난예. 그 당이, 당이 그 사람들이 경허잖아예. 우리 조상님들 덕분에 잘된다. 잘되면은 조상님 덕분에 잘된다. 또 우리 애기들 잘되게 해달라고 당에 가서 빌고, 남자할 때라고 당에 가서 비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예, 우리 마을 잘되라고 비는 사람도 단헌명도 없을 거고, 우리 애기 잘 되게 해드라, 진급 되게 해드라, 뭐 무사고 해드라, 다 이렇게 해서 가 빌고 오는 사람들인데, 가면 자기거는 자기가 가져와야 되는데, 그 할망당에 좀 먹으라고 조금만 이렇게 테우려 주고, 어차피 안 먹으니까 그거를 가져와서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병도 가서 내불고, 다 그냥, 다 그래, 다, 가져오는 사람은 뭐 일부.

Q : 이장님이나 거기는 뭐 바다 쪽이기 때문에 어촌계장님이나 인식이 있는 분들은 정말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예. 거기도 분명 아름다운 당이겠지 해서 가보니까 완전 실망한 거예. 제단은 두개(2개)잖아예.

A : 예. 게난

Q : 그 경관이 참 예뻐예. 쓰레기만 치우면 그

A : 거난 그 당이 서귀포시에 사람들이 거의 다 와예. 마을만 오는 게 아니고, 거 뭐 신시가 지서부터 도순, 뭐 어디 중문에서 그 당을 믿는 사람들은 거기를 다 옵니다. 거기 다 오는데 이제 마을은 어촌계<sup>20)</sup> 밀리고, 어촌계는 어촌계 사람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서귀포시가 다 이용하는 당이기 때문에 마을회장이 해줘야 된다. 옛날부터 우리가 그 유교 사상 보민 '당 함부로 건드리면 이제 벌 받는다.'고 하고, 거기가 보민 또 그 옛날에 보민 큰 뱀이 거기 왔다 갔다 막 했던 기억도 저도 어릴 때

Q : 토산계<sup>21)</sup> 답다계<sup>22)</sup>.

A : 예. 어릴 때 보민 그 뱀이 아주 큰 뱀이 거기 왔다 갔다 이렇게 헨거 나도 몇 번 본 적이 있어서, 그 잘못 건드리면 자기 죄 뒤집어쓸까봐 그렇게 하잖아예.

Q :

A : 우리 뱀을 보고 칠성이라고 해가지고 '칠성 잘못건드리면 집안에 재앙이 붙는다.' 이렇게 막 하면서 아무나 건드리지 안 허는게 해서, 옛날에는 교회에서 몇 번 와서 청소 한 적이 있어예. 그래서

Q :

A : 경헌디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도움을 주고 하면서 부탁도 해야 하는데, 뭐 교회 땡기는 사람들은 청소만 하라는 사람이 아니고 부탁은 부탁 못하잖아 자유적으로 와가지고 허든 몰라도예

Q : 그 육지 물질도 갔다옵디가?

A : 예

---

18) 해난 : 하였던

19) 경 : 그렇게

20) -레 : -에 예) 어촌계레 : 어촌계에

21) 토산계 : 토산계 민간신앙

22) -답다계 :

Q :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A : 태안, 태안 그 모항이라는 데, 모항이라는 데 나 한 해 갔다왔는데 그 때 막 집안적으로 힘들고, 막 한에 그냥

Q : 거기 제주도 분들

A : 예, 많아요

Q : 몇 분 있었어요

A : 예. 많아요. 경천도 저기 안흥 쪽에는, 안흥 쪽에는 올해도 법환이 해녀들도 한 세,네명 (3,4명) 가고, 서귀포시 쪽에 있는 해녀들 많이 가요. 거기 한 열명(10명)쯤 가고, 또 그 밑으로 또 내려오면 또 뭐, 보령쪽에도 많이 가고, 하여튼

Q : 흑해삼들 작업해수과?

A : 예 흑해삼에